

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

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86호 2019년 4월 24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△Tel.+82-51-797-4665 Fax.+82-51-797-4659 △총괄:박성준 러시아연구센터장 △감수:길광수 명예연구위원 △편집:김영지 연구원

주요내용

통계로 보는 북방(p.2)

- 우크라이나 오데사항, 올 1분기 물동량 약 630만 톤 기록

주요 동향(p.5)

- 동부(p.5)
 - FESCO·RZD 로지스틱, 복합운송 파트너십 체결
- 중부(p.7)
 - 우즈베키스탄,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으로 교류 증진 기대
 - 키르기스스탄, 러 대통령 방문 계기 경제부문 성장 기대
- 서부(p.11)
 - 러 천연자원부, '북극 광물자원·물류 잠재력 실현 위한 포괄적 계획'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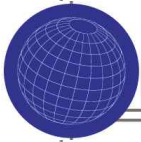
주요통계(p.13)

-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어종 도매 가격(2019년 4월 8~15일 기준)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서부권역 : 러시아 서부, 우크라이나, 벨라루스 등 / 중부권역 : 중앙아시아, 몽골 / 동부권역 : 러시아 극동, 시베리아



통계로 보는 북방

■ 우크라이나 오데사항, 올 1분기 물동량 약 630만 톤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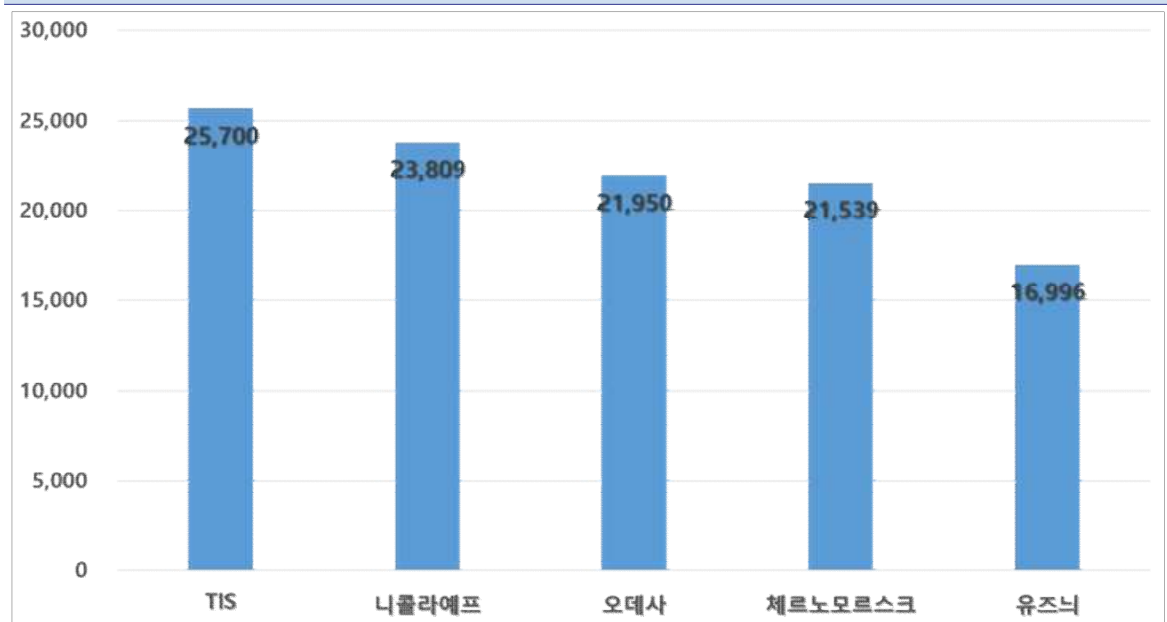
- 우크라이나 항만공사(Ukrainian Sea Port Authority) 오데사(Odessa) 지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올해 1분기 오데사항의 물동량은 620만 9천 9백 톤을 기록했다
 - 이는 작년 1분기보다 약 30만 톤(전년 대비 5%)이 증가한 것임
 - 고체화물의 경우 작년 1분기 물동량보다 6.6% 증가한 543만 톤을 기록했다
 - 반면 작년 1분기 액체화물의 물동량은 46만 톤이었으나, 올해 13.3%가 감소해 40만 톤을 기록함
 - 한편 오데사항 측은 물동량 중 곡물은 246만 3천 톤, 금속제품은 124만 4천 톤으로 전년대비 14.9%가 증가했다고 밝힘
- 이호르 트카추크(Ihor Tkachuk) 오데사 항 지사장은 올해 물동량 증가에 대해 항만 인프라 시설 및 생산 시설의 현대화, 프로젝트 투자액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평가했음
 - 전통적으로 오데사항을 통해 수출하는 기업들의 생산 콤비나트 단지 현대화 및 보수작업 완료에 따라 금속 제품의 생산량이 증가해 물동량 또한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
 - 또한 곡물 생산량의 증가 및 항만 터미널 운영기업의 항만 역량 강화 투자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가 곡물 처리량 증가에 기여한 바가 큼
 - 특히 인프라 설비 투자에는 사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기업인 우크라이나 식품양곡공사(State Food and Grain Corporation of Ukraine)의 계열사 ‘오데사 양곡 터미널’의 투자 비중이 컸음
 - 이와 같은 항만 인프라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오데사항은 올 2월~3월(2개월) 12만~15만 톤에서 23만~25만 톤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음



- 2018년 물동량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항만 중 1위는 TIS(민간 항만), 2위는 니콜라예프르 오데사 항만은 3위를 차지했음
 - 올해 1분기 니콜라예프 항만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% 증가했으나, 우크라이나 항만 물동량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로, 올해 1분기 항만 순위는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남

우크라이나 항만별 물동량 순위

(단위: 백만 톤)



자료: <https://dumskaya.net/news/v-pyaterke-liderov-ukrainskih-portov-chetyre-iz-094185/>(검색일: 2019년 4월 22일)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maritimebusinessnews.com.ua/%D0%B2%D0%B0%D0%BD%D1%82%D0%B0%D0%B6%D0%BE%D0%BE%D0%B1%D1%96%D0%B3-%D0%BE%D0%B4%D0%B5%D1%81%D1%8C%D0%BA%D0%BE%D0%B3%D0%BE-%D0%BF%D0%BE%D1%80%D1%82%D1%83-%D1%83-%D1%81%D1%96%D1%87%D0%BD%D1%96-%D0%B1/2019/04/16/> 2019(검색일: 2019년 4월 23일)

<http://agroportal.ua/news/ukraina/perevalka-zerna-v-portakh-vyroslo-na-30-udobrenii--vdvoe/>(검색일: 2019년 4월 23일)

<https://dumskaya.net/news/v-pyaterke-liderov-ukrainskih-portov-chetyre-iz-094185/>(검색일: 2019년 4월 23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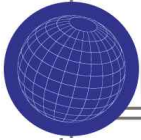


김엄지 연구원

051-797-4776, umjikim@kmi.re.kr

조용성 현지리포터(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)

+7 981-198-65-06, mirinae2929@gmail.com



동부권역 주요 동향

■ FESCO·RZD 로지스틱, 복합운송 파트너십 체결

- 러시아 운송기업 FESCO와 RZD 로지스틱이 파트너십을 통해 환적을 위한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
 - 본 운송서비스는 아시아·태평양 국가들의 컨테이너 화물을 블라디보스토크항에 하역 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이용해 유럽으로 운송하는 것임
 - 두 기업은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화물운송 및 기술을 개발 해 제공할 예정임
 - 또한 정기 컨테이너 열차 운행, 화차·컨테이너·전용 터미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

FESCO와 RZD 로지스틱 파트너십 체결



자료: <http://www.morvesti.ru/detail.php?ID=78181>(검색일: 2019년 4월 21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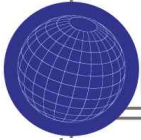


- 아·태지역 국가에서 유럽까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이용한 복합운송서비스는 일반적인 해운노선과 비교했을 때 화물운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
 - 두 기업은 올해 4월말 시범운행을 계획하고 있음
 - 주요 화물은 자동차, 소비재, 생필품 등으로 중앙 및 서유럽으로 운송할 예정임
- 알렉산드르 이수린 FESCO 사장은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 중 유럽의 최대 교역국가이며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통한 운송기간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통해 화물을 유치하고자 함
 - FESCO는 아·태지역 국가에서 러시아까지 단기간의 복합운송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으며 RZD 로지스틱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력 있는 환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
 - 이에 따라 전략목표로 2024년까지 러시아에서의 환적 처리물동량 약 200만 TEU를 달성하고자 함

■ 참고자료 : <http://www.morvesti.ru/detail.php?ID=78181>(검색일: 2019년 4월 21일)

김은미 현지 리포터(국립극동교통대학교)

051-797-4776, usea1004@gmail.com



중부권역 주요 동향

■ 우즈베키스탄,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으로 교류 증진 기대

- 지난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,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(Shavkat Mirziyoyev)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
 -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 파트너라 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보다 활발한 교역, 자유로운 투자 유치 기회 확대 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다는 평가임
 - 이러한 점은 최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개방적 경제 정책과 함께 호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 - 이에 2006년도에 수립했던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이번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성과를 가져옴
- 이번 한국 정부의 중앙아시아 지역 순방을 통해 국가별로 다양한 부문의 협력이 논의되었으며,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기업진출에 대한 실질적 차원의 계획들이 이행될 전망이다
 - SK건설은 우즈베키스탄 국영 석유가스공사(Uzbekneftegaz)와 부하라 정유공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 약 6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함
 - 이는 나보이 복합발전소의 3단계 건설공사 및 슈르탄 가스 화학단지 프로젝트 등의 한국 기업과 공동으로 기획한 여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
 - 또한 KOTRA 역시 대통령 순방과 연계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‘비즈니스 파트너십’이라는 플랫폼을 활용, 오늘 날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, 보건 의료 산업 부문의 컨설팅을 지원했음
 - 우즈베키스탄 측에서 참가한 바이어는 약 160개사에 달했고, 250여건의 컨설팅이 이루어졌음



- 비즈니스 파트너십 프로그램에는 우즈베키스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국영기업들도 다수 참가했으며 우즈베키스탄 국영 석유가스공사, 자동차 국영지주회사(Uzavtosanoat), 가전제품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ARTEL사 등이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기대하는 의지를 보임
- 양국은 보다 향상된 차원의 협력을 목표하고 있으며, 기존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탈피한 미래지향적 산업에서 새로운 논의를 진행 중임
 -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보건의료 협력센터 건설 추진과 관련해 양해각서를 체결, 특히 정보기술과 보건기술이 융합된 소위 스마트 헬스 케어와 같은 미래지향적 산업에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많은 관심을 보였음
 - 우주산업 부문에서도 위성국 설치에 관한 협력 논의를 이끌어냈으며,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 산업 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기반을 공고히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함
 - 그 외 한국예술의 집 개관, 고려인 동포 포럼 등을 통한 행사에서는 양국의 문화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해 이른바 신 실크로드 노선을 다시 한 번 유라시아 대륙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특히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이런 새로운 차원의 요소들과 잘 결합한다면 향후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■ 참고자료 : OFFICIAL WEBSITE OF THE PRESIDENT OF UZBEKISTAN(검색일: 2019년 4월 23일)

오상호 연구원

031-330-4145, editor405ca@gmail.com



■ 키르기스스탄, 러 대통령 방문 계기 경제부문 성장 기대

- 지난 3월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를 공식 방문해 소론바이 제엔베코프(Sooronbay Jeenbekov)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
 -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문으로 수도 비슈케크에서만 약 6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, 특히 키르기스스탄 내 러시아 군사기지 확대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
 - 러시아의 대 키르기스스탄 투자 중 대부분은 전력산업과 광물, 탄화수소 등 부문으로, 약 37억 달러 상당 규모임
 - 그 이외 부문으로는 일반 산업 및 농업과 관련한 거래로 알려짐
 - 특히 러시아에 소재한 루셀프롬(Ruselprom)사(社)와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
 - 루셀프롬사는 1991년 창설된 러시아 전기·기계 및 발전기 관련 기업으로, 판매량 규모 기준 세계 400대 기업에 포함됨
-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러시아와 철도 네트워크 개발 협력을 위해 최대 70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시행할 계획에 있음
 - 이는 최근 러시아가 중국과의 전략적 경제 협력을 위해 필요한 철도 이니셔티브의 일환이기도 하며, 키르기스스탄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곧 원활할 물류 운송노선 구축을 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
 - 특히 키르기스스탄 철도공사의 카나트 압디케리모프(Kanat Abdykerimov) 사장은 중국으로부터 키르기스스탄,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과 키르기스스탄 남북 철도 노선 네트워크 확대 구축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함
- 양국은 2015년 공식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 연합(Eurasian Economic Union: EAEU)을 통해 보다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 갈 전망임
 - 지난 2018년은 전년도에 비해 러시아의 대 키르기스스탄 투자가 25%나 증가했으며, EAEU 회원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무역도 증가하는 추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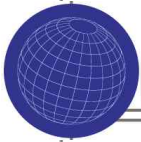
- 또한 러시아는 2020년도까지 EAEU 회원국 간 국경 통과 문제와 같은 기술적 문제 보완을 위해 2억 달러를 추가로 할당할 것이라고 강조함

- 러시아는 경제부문 협력뿐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내 군사기지 확장에도 목표를 두고 있음
 - 양국은 약 850ha 규모의 러시아 칸트(Kant) 공군 기지 설치를 협의했으며, 이곳은 전투기 배치와 함께 유사시 대공 공격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
 - 한편 이식쿨(Issyk-Kul) 지방의 카라콜(Karakol) 잠수함 군비 실험시설은 기존 55ha에서 73ha로 확장될 계획임
 - 아울러 러시아 당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디지털 안보를 위한 통신 거점 센터나 무기 실험을 위한 장소 확보에도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

■ 참고자료 : EURASIANET (검색일: 2019년 4월 2일)

오상호 연구원

031-330-4145, editor405ca@gmail.com



서부권역 주요 동향

■ 러 천연자원부, '북극 광물자원·물류 잠재력 실현 위한 포괄적 계획'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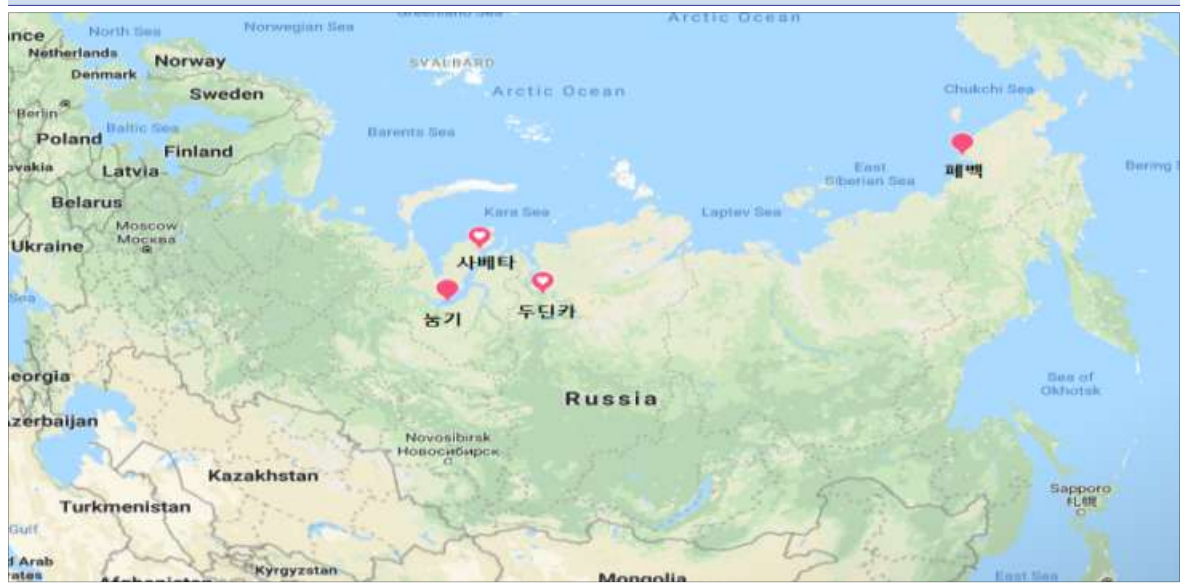
-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2019년 3월 천연자원부가 마련한 '북극 광물자원 및 물류 잠재력 실현을 위한 포괄적 계획(이하 포괄적 계획)'을 발표했다
 - 포괄적 계획은 2018년 푸틴 대통령의 '5월 대통령령'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임
 - 자원 매장지 개발 및 관련 인프라 지원을 위한 118개 프로젝트가 제시되어 있음
 - * 러시아 북극지역을 구성하는 9개 지방¹⁾이 내놓은 상황분석 및 장기전망에 제안과 정보가 포괄적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
- 포괄적 계획이 실현될 경우 북극항로를 통한 운송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
 - 북극항로를 통한 운송량은 기존의 증가추세를 유지하게 될 경우 2024년까지 6,000만 톤으로 증가하며, 118개 프로젝트가 모두 완료될 경우 7,700만 톤*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 - * 2018년 5월에 발표된 푸틴 대통령령의 북극항로 운송량 목표치인 8,000만 톤에 근접
 - * 타이미르(Taimyr) 석탄분지, 파야흐(Payakh) 석유매장지 등이 적기에 개발될 경우 운송량이 증가할 수 있으며, 추가적으로 수준스키(Suzunsky) 석유매장지, 타굴스키(Tagulsky) 석유매장지, 로도치니(Lodochny) 석유매장지 등을 잇는 인프라 사업이 완료되면 운송량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
 - 모든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0.5조 루블이 민간부문에서 조달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

1) 러시아 북극지방은 무르만스크 주, 네네츠크 자치구, 추코트카 자치구, 야말로-네네츠크 자치구, 코미 공화국(일부), 사하 공화국(일부),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(일부), 아르한겔스크 주(일부), 코렐리아 공화국(일부)



- 현재 LNG, 석유, 콘덴세이트, 석탄, 광물 등이 북극 항로를 통해 운송되고 있음
 - 사베타항과 두딘카항은 일년 내내 운영되고 있으며, 농기항·페벡항 등은 계절별로 운영되고 있음(그림 참고)

북극항로의 주요 항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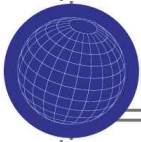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구글맵을 기반으로 작성.

- 참고자료 :
- http://www.mnr.gov.ru/press/news/kompleksnyy_plan_realizatsiya_mineraln_o_syrevogo_i_logisticheskogo_potentsiala_arktiki_razrabotannyy/(검색일: 2019년 4월 22일)
 - <https://rg.ru/2019/03/13/v-razvitie-logistiki-arktiki-predlozhili-investirovat-105-trln-rublej.html>(검색일: 2019년 4월 22일)
 - <https://thebarentsobserver.com/en/arctic/2019/03/eu143-billion-investments-needed-northern-sea-route>(검색일: 2019년 4월 22일)
 - <http://www.arctic-info.ru/>(검색일: 2019년 4월 22일)

민지영 리포터(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)

misjee@hanmail.net



주요 통계

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어종 도매 가격(2019년 4월 8~15일 기준)

(단위: 백만 톤)

연방관구	어종	1kg당 가격 (단위: 루블)	가격 변동률	
			주간	1월1일~4월15일
극동 연방관구	대구	208.0	-1.0%	+5.1%
	명태	100.0	-3.8%	+2.0%
	청어	60.0	0%	+20.0%
	가자미	120.0	0%	+33.3%
북서 연방관구	해덕대구	215.0	0%	+2.4%
	대구	270.0	0%	-8.5%
	고등어	145.0	0%	+12.0%
	청어	80.0	0%	+14.3%
중앙 연방관구	고등어	150.0	0%	+15.4%
	명태	121.0	-1.6%	+3.4%
	열빙어	90.0	+5.9%	+80.0%
	청어	87.0	+1.2%	+19.2%

참고자료 : <http://www.morvesti.ru/detail.php?ID=78095><http://mcx.ru/upload/iblock/0e1/0e12684eb10d811465534c60dca4742b.pdf> (검색일: 2019년 4월 23일)

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(KMI 러시아연구센터)

7-914-345-3947, aquillar7@gmail.com